"여신"과 "대출"

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

여신: 금융기관에서 조금 빌려주는 일 \ 사건 이라 부름

대출의 의미입니다만

금융기관에 가면 대출이라는 용어 대신 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

해당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.

반대어로는

수신: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용

즉, 예금이나 적금을 말하는 것이지요.

그럼 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대출: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

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.

<u>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거래도 포함</u>되며

빌려주거나 또는 빌리는 것 모두 포함이 됩니다.

<u>여신과 비교해보면</u>

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것은 똑같은 점이고 대출에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정주체가 필요 없다는 점과 빌려 주는것과 빌리는 것 모두 해당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.

결론적으로

대출이라는 큰 범위내에 여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